

## ‘더 큰 문제’와 사이버성폭력

2015년 ‘소라넷’ 폐지운동을 계기로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그 전까지 ‘몰카’나 ‘야동’이라고 불려오던 사이버성폭력은 대한건아들의 참을 수 없는 성적욕구 때문에 벌어진 안타까운 일에 불과했으나, 불법촬영물 게시물이 올라오는 사이트를 샅샅이 찾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고 공론화했던 사람들로 인해 ‘몰카’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폭력으로 인식 될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이라는 아무것도 잊혀지지 않는 공간에서 끊임없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사이버성폭력에 맞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촬영물은 촬영되고 유포되고 소비되며 많은 이들 입에 가십으로 오르내린다. 이 변함없음에 분노한다. 얼마 전 가수 승리와 정준영 등이 불법촬영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성범죄사실이 알려졌다. 어떤 이들은 그 연예인들의 ‘일탈’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축소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정말 ‘더 큰 문제’는 축소되었나? 이 남성들은 자신의 알량한 남성성을 과시하고 인정받기 위해 사이버성폭력을 저질렀다. 사이버성폭력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가 되고 ‘남성’이 된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다시는 방송인으로서 재기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자이자, 인간성이 결여된 존재로서, 사회와 격리시켜 재교육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되는 것일까. 그 모든 ‘더 큰 문제’보다도 타인의 인간성을 파괴하며 즐거워했다는 것이 가장 큰 범죄로 인식되어서는 안되는 것일까. 이것은 그들의 범죄를 축소하는 것일까. 나의 고민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사이버성폭력이 밝혀진 직후 불법촬영물이 실시간검색어에 오르며 한국사회의 변함없음을 증명해냈다. 아 대단한 사회다. 한 치의 반성도 없는 끔찍한 이 대한 건아들은 불법촬영물을 소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다. 그것을 보는 것이 그들이 그렇게 욕하는 가수 승리와 정준영이 저질렀던 범죄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을 조각내고 파괴하는 일임을 잘 알면서도 불법촬영물을 소비하는 범죄를 일말의 수치심 없이 해낸다. 오히려 다들 하는 일을 그 연예인들이 조심성이 없어서 한심하게 잡혔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 사회는 가수 승리와 정준영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공간이다.

여성단체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는 게으른 비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위같이 단단한 남성사회를 부수고자하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한사성)’와 같은 단체에도 여지없이 적용된다. 한국사회 안에 공기같이 흔한 승리들과 정준영들을 제재하고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지만, 그런 것은 비난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모양이다. 그들의 비난과는 다르게 한사성과 다른 여성단체들은 바위조차 깎아내는 파도처럼 그 운동을 멈춘 적 없다. 그래서 결국 이 여성단체들은 국가가 임시적으로나마 불법촬영물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비로소 사이버성폭력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하는 위법 행위임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시화된 것이다.

#불법촬영물\_SNI차단이라는 공론장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을 때, 나는 이 공론장이 당연하게도 지금의 불법촬영물 사이트 차단에 대해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지,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운동을 이어나갈 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고 상상했다. SNI차단이라는 기술을 잘 알지 못해 검색해보니, 불법촬영물(사이버성폭력) 사이트를 우회하여 접속하는 방법이 아주 쉽게 정리되어있는 게시물들을 찾을 수 있었다. 찾고자 함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잠재적 범죄자’들을 보게 되었고 답답함을 느끼며 공론장을 찾았다. 사회자의 말과 함께 행사가 시작되었을 때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논의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발제자는 한사성의 서랑님과 진보네트워크의 미루님이셨다. 한사성 서랑님의 발제는 예상했듯이 사이버성폭력과 SNI차단 시행과 관련한 내용이었고, 미루님의 발제내용은 SNI차단의 한계와 정보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었다. 서랑님은 SNI 차단이 사이버성폭력근절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과 준비하고 있는 다른 대책들을 말해주셨다. 반면 미루님은 이때까지 국가가 일방적

으로 인터넷사이트를 제재했었던 다른 사례를 들어 SNI차단 정책에 우려를 표했지만, 이것이 피해자의 구제와 대립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다. 사회자와 발제자들은 계속해서 이것은 한 쪽으로 결정지어 논 의할 필요가 없으며, 사이버성폭력제재와 정보인권은 서로 대결하는 개념이 아님을 밝혔다. 하지만 그것을 강조할수록 이 주제로 함께 얘기한다는 것에 이질감이 느껴졌다. 서로 대립하는 개념도 아니고 사이버성 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적을 이야기하고자 함도 아니라면, 어째서 한사성과 진보네트워크가 투톱발제자인 공론장이 만들어진 것인가. #불법촬영물\_SNI차단이라는 공론장은 진보네트워크를 발제자 로 배치하면서 국가가 시민을 대상으로 SNI차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와 우려를 표하려고 노력했 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사이버성폭력 문제와 함께 논의해야만 했던 걸까? 다시 말하자면 국가의 정보인 권침해문제를 우려하며 경계하고자 함에 여성의제를 끼워 넣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SNI 차단이 사이버성폭력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이 있을지, 기술적인 한계로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SNI차단 을 사이버성폭력을 끝장낼 정부정책으로 들고 온 이유는 뭔지, 정부는 이미 작년 5월부터 이야기된 SNI 차단을 왜 지금 불법촬영 문제와 함께 엮어서 발표하는지 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정부의 정보인권침해 에 경계해야 한다는 미루님의 주장을 들을수록 이 공론장의 구도가 어색해보였다. 애초에 불법촬영 문제와 엮어서 토론이 될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불법촬영 문제 해결을 위한 불충분하고 미심쩍은 정책을 발표하는 정부도, 그들에게 '저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 불법촬영 문제 를 배치하는 이번 토론회도 실제 여성과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의 심정 따위는 고려하지 않은 듯했다. 각 단체가 주장하는 가치와 의제가 아주 중요한 한국사회의 문제이며 사회자와 발제자들이 재차 강조했다이 서로 대결하거나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각각의 의제는 하나의 단일하 고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며 다양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여성의제 또한 다른 의제와 같은 무게 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일까. 그렇게 다양한 것들이 연결되어있다면, 그 많은 것과 연결되어 더 어렵고 무거운 불법촬영물(사이버성폭력)문제가 단 하나의 공론장 사업으로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일까. 여성(문제)은 늘 왜 '배치' 될까. 우리는 더 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을까? SNI차단이 문제라면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불법적으로 촬영을 하고 유포하는 남성들의 강간문화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 안의 승리들과 정준영들을 해체하고 또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과 분노로 글을 마무리하게 된다. 어쩌면 나와 같은 조에 앉아 바들바들 떨며 '이 얘기하는 것이 화가 난다'고 말 하고 입을 닫았던 조원의 마음은 나와 같았을 수도 있겠다.